

#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越境과 再生\*

## -『藤野先生』과 『惜別』을 중심으로-

박성희\*\*  
seongheeo2@paran.com

### <目次>

- |                  |            |
|------------------|------------|
| 1.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越境 | 4. 텍스트의 再生 |
| 2. 原典의 解体        | 5. 맺으며     |
| 3. 텍스트의 變容       |            |

주제어: 魯迅(Lu Xun), 太宰治(Dazai Osamu), 藤野先生(Mr. Fujino), 惜別(Farewell), 仙台医専(Medical College of Sendai), 越境(crossborder), 解体(dissolution)

## 1.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越境

중국의 대문호 魯迅의 『藤野先生』은 다음의 인용부가 그 핵심인 듯하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 들 가운데서 가장 나를 감격시키고 고무해준 한 사람이다. 나는 가끔 나에 대한 그의 열렬한 기대와 지칠 줄 모르는 가르침을 작게 말하면 중국을 위해, 즉 중국에 새로운 의학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며, 크게 말하면 학술을 위해, 즉 중국에 새로운 의학이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름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성격은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위대했다.

(『藤野先生』p.213)

센다이(仙台)는 일본 本州 북동부 도시로서 미야기 현의 소재지이다. 이곳의 医学専門学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408)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1) 도호쿠 지방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어, 중앙관서와 회사·은행의 출장소·지점 등이 고루 입지하였으며, 도호쿠대학을 비롯한 10여 개의 대학 및 박물관·천문대·동물원·야생식물원·종합경기장·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많다. 센다이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전재(戰災)로 많은 사적·문화재를 잃었으나 시가지는 근대적으로 재건된 전형적인 소비도시이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校에서 魯迅이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유학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魯迅은 『藤野先生』을 썼고, 太宰治는 『惜別』을 남겼고, 藤野巖九郎는 魯迅 사후에 「周樹人君을 회상하며」<sup>2)</sup>를 남겼다. 이들 텍스트는 순차적으로 콘텍스트의 역할을 담당하며 중일관계 속 정치와 문학을 마음짚해간다.

魯迅의 『藤野先生』은 1926년 10월 12일에 완성된, 일종의 身邊小說이다. 작자가 일찍이 당시 신흥 선진국이던 일본 仙台医学專門學校 재학 시절에 알게 된 한 무명 과학자인 고매한 노교수로부터 받은 인상과 감화를 감명 깊게 엮은 것이다.

太宰治의 『惜別』은 1946년 2월말 완성, 9월 간행된 작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내각 정보국과 문학 보국회의 의뢰가 직접적인 집필 계기라는 점, 작품에 그려진 중국인식이 안이하다는 점, 자의적인 魯迅像을 그렸다는 점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sup>3)</sup>와 작가 魯迅의 중국민중에 대한 사랑과 고독한 魯迅像을 부각했다는 점, 전시 체제하에서 적대국인 중국문제를 다루었다는 점, 또 전후 사회를 맞이하려는 太宰의 필사적인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sup>4)</sup>를 받기도 하는 다소 양극의 작품이다.

한편 中野重治는 夏目漱石도 魯迅도 30여년 가까이 애독해 온 작가인데 「魯迅은 친근한 일본 작가인 漱石을 읽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다」고 魯迅을 평한다.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자. 어떠한 경우에도 바른 사람이 되지를 넘어, 또한 자신도 일본 민중을 위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자. 일본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일하자. 오키나와인을 포함한 일본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임무를 받고 분투하자. 그를 위해선 일신의 이해, 이기를 벗어던지고 압박이나 곤란, 음모가들의 간계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자. 고립되고 포위되더라도 싸우자는 기분이 된다.<sup>5)</sup>

---

센다이 시에서 동쪽으로 179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동북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하여 이 일대는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설비 손상,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

- 2) 藤野巖九郎는 생전에 魯迅의 서거를 알고 「周君을 조금 도왔지만 나를 은사로 보고 그토록 감동해 일생 사진을 방에 장식해 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소식을 알고 싶어 했다고는……. 저명한 작가 魯迅이 周樹人君이었다고는, 연락이 되었더라면 본인도 기뻐해 주었을 것이다. 약간의 친절을 그렇게까지 은혜로 감사해 준 周씨의 영혼을 깊이 弔喪한다」는 담화를 남기고 있다.(『文學指南』1937.3월호)
- 3) 奥野健男(1998)『太宰治論』文春文庫,p.248, 尾崎秀樹(1961.8)『文学』岩波書店, 参照, 竹内好(1947)『近代文学』 등.
- 4) 藤井省三(2002)『国文学』至文堂, pp.57-62, 高橋秀太郎(1999)『日本文芸論稿』26, 등.
- 5) 中野重治(1977)『中野重治全集』20권, 筑摩書房,

中野는 魯迅을 읽으면서 정치적 투쟁을 感奮하게 된다고 쓰고 있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깊은 감동을 받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감동이라는데 머물지 않는다. 나아가 악과 싸우지는 지경에 이른다. 악을 미워하는 경지에 이른다.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정치적 감동으로 읽기를 인도하는 것, 여기에 魯迅 문학의 근본 성격이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근대 조선은 물론, 근대 중국이 걸어온 역사도 학교·대학·공무원의 모습에서 조차, 일본의 明治·大正과는 많이 다르다.<sup>6)</sup> 中野가 느낀 그 차이에 魯迅문학이 놓여있고, 太宰治가 상상한 이면에 魯迅문학이 위치한다고 생각된다.

魯迅은 젊어서 민족주의, 이후 민주주의, 말년에는 사회주의로 관심을 옮겨간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주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을 추구하면서 회의한다. 청국유학생 魯迅이 만난 『藤野先生』은 「惜別」百年을 기념하여 넘기고, 仙台医専을 거쳐 北京魯迅博物館과 일본 藤野巖九郎記念館에 현재하고 있다. 의외로 魯迅의 『광인일기』는 1927년 8월 우리나라 『동광』에서 처음으로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魯迅은 자기를 포함한 민중을 늘 비판하고 회의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 주장은 지금도 중국을 넘어 현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藤野先生』과 『惜別』<sup>7)</sup>이 개별 텍스트이면서 콘텍스트로 작용하고 있음을 상정하고 그 관련성을 천착해 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의 문학적 틀을 미술 부분<sup>8)</sup>까지 확장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두 작가의 이해를 위한 또 다른 콘텍스트로써 복합적이고 풍부한 해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2. 原典의 解体

전쟁기의 太宰治는 시국을 찬양하는 작품을 쓰는 대신 『쓰가루(津軽)』 『惜別』 『옛날이야기(お伽草子)』 등과 같은 작품을 쓰며 당시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일본 작가가 공백기인 이 시기에 太宰治의 경우 전전에서 전후로 넘어가는 작가세계를 펼치고 있다. 기존의 유명하거나 진부한 이야기를 소재로 택해 원전을 재구성하고 작품화

6)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拙稿, 박성희 권혁건 「『近代化』의 間隙과 苦惱-魯迅과 森鷗外の 경우-」 『中國學』 제32집을 참조 바람.

7) 『藤野先生』은 魯迅전집번역위원회 옮김(2011) 『루쉰전집』 그린비, 『惜別』은 太宰治(1991), 『惜別』東京: 新潮文庫, 를 기본 텍스트로 한다.

8) 본문에서 인용한 그림들은 魯迅의 경우, 『루쉰전집』에서 太宰治(1985)의 경우 『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 新潮社에서 주로 참고하였으나, 부족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구했음을 밝혀둔다.

해 나가는 것이 太宰治 특유의 작가적 성향을 잘 드러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유학시절 잠깐 접한 魯迅의 仙台 경험이나,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현실 사회의 실제 이야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에게 각인하는 것, 이것이 太宰治 문학의 정수이며 이 시기의 작품들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그때는 벌써 초겨울이어서 날씨가 껍이나 쌀쌀했지만 웬일인지 모기는 많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불로 온몸을 전부 감싸고 옷으로 머리며 얼굴을 두른 다음 두 콧구멍만 내놓았다. 숨을 계속 쉬는 콧구멍에 모기도 주둥이를 들이박을 수 없으므로 그런대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藤野先生』p.207)

『藤野先生』의 이러한 기술은 『惜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보다는 근대 의학에 대한 기대나 위생제국 일본에 대한 강조가 드러날 뿐이다.

도쿄는 모두 바빴고 전차의 선로가 하루가 다르게 사방으로 뻗어 나가고. 글썩. 그것이 지금의 도쿄의 상징이겠지요. 덜컹덜컹 매우 시끄러운 데다 전쟁 강화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며 도쿄 시민들은 살기를 발하며 여기저기서 울분의 강연회를 열고, 아주 불온한 형세로 지금이라도 수도에 계엄령이 시행된다는 등의 소문조차 있습니다. (『惜別』p.282)

「도쿄도 그저 그런 곳이었다」라는 『藤野先生』의 기술에 비해 위와 같은 『惜別』의 표현이 대체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위생제국에 대한 인지도나 그 가치평가는 『藤野先生』보다 『惜別』에 훨씬 강조되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1900년 초 중국의 현실과 유학시기의 魯迅의 자각과 『藤野先生』을 쓴 1926년 중국의 현실에 비추어 魯迅의 자각보다는, 1945년 太宰治가 유추해낸 魯迅의 모습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가장한 위생인식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동양의 당면 과제는 과학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일본의 비약도 한 무리의 네덜란드 의학전문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했다 (『惜別』p.219)

太宰治는 네덜란드 의학의 공로를 아주 높이 평가한 듯하다. 또한 당시 일본의 개혁이 성공적이었음을 자부하고 있었던 듯하다.

일본의 維新思想이 한 무리의 네덜란드학 연구자들로부터 큰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일본의 維新도 저렇게 빛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惜別』p.235)

『惜別』에는 이런 근대 초 성공한 일본의 의학 유입 및 위생에 대한 의지가 끊임없이 서술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 의학의 초기 공로자인 네덜란드 의학에 대해 좀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蘭學 유입부터 살펴보자. 네덜란드는 16세기말 이후 스페인이 개척하고 장악했던 해상 무역로를 탈취하여 한때 범지구적인 무역중심지로 떠올랐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개신교도였지만 그보다 더한 重商主義者였고 拜金主義者였다. 그들은 일본 막부의 선교금지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通商에 몰두하였다. 일본인들도 이들은 포르투갈·스페인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여 따로 홍모인(紅毛人)이라 불렀다. 일본인들은 네덜란드인들을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섬 데지마(出島)에 몰아넣었으나, 종교색이 배제된 학문은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蘭學」, 네덜란드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일본의 지식인 사회 안에 자리 잡았다. 이 무렵에는 서양의학도 잇단 혁명적 발견에 기대어 근대의학의 내실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초기 蘭醫學을 네덜란드인의 머리 색깔을 따서 紅毛醫學이라고 부른다. 1600년 3월 16일 네덜란드 배 리프데호가 오이타현(大分県) 사시우(佐志生)에 표착하게 되고 이 배를 탔던 안 요스텐<sup>9)</sup>은 도쿠가와 막부의 상급무사인 하타모토(旗本)<sup>10)</sup>가 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기독교를 배척하여 1613년 전국에 금교령을 내리고, 1616년 외국선박의 입항지를 히라도(平戸)와 나가사키(長崎)로 제한했다.

과학은 반드시 인간 최고의 덕목은 아니지만, 한손에는 심오한 학문의 구슬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활발한 과학의 칼을 쥐고 있으면 틀림없이 열강들도 손끝하나 대지 못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이상국가가 될 것이다. (『惜別』p.219)

『藤野先生』과는 달리 『惜別』에서는 선진의학은 곧 蘭醫學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는 太宰治의 선진의학에 대한 인지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蘭醫學의 모태였던 出島에 체재한 의사들의 대부분은 외과의사들이었고, 예외적으로 소수의 내과의사가 있었다.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는 이질적인 의료직<sup>11)</sup>이었다.

9) Jan Joosten van Loodensteijn(1557~1623)선원·무역가. 江戸에 거주, 일본식이름 야에스로 현재 일본 동경 야에스구치(八重州口)의 유래, 무역으로 활약.(『広辞苑』)  
 10) 에도시대 장군 직속의 家臣중의 하나. 쇼군을 알현(謁見)할 수 있는 직급의 상급무사로 一萬石 이하의 영지를 배당받았다.(『広辞苑』)

상업을 위해 出島를 출입했던 일부 일본인 통사들은 네덜란드인 외과의사의 의술에 흥미를 가졌다. 또 1633~1790년에 매년 1회, 1790~1850년 사이는 5년에 1회 행해졌던 에도 참부(江戸参府) 때에는 외과의사가 상관장을 따라서 에도의 쇼군을 알현했다. 이 여행 중에 일본인 의사들은 네덜란드인 외과의사를 만나서 서양의학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네덜란드 의사로부터 의학을 직접 배우거나 그들이 사용하는 医書를 학습, 번역<sup>12)</sup>하였으며, 개중에는 직접 네덜란드에 가서 의학을 배우고 귀국한 사람도 있었다. 계속해서 太宰治의 과학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에 최초로 경종을 울린 것은 네덜란드 학이라는 서양과학이었다고 들었다. 나는 중국의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가 되고 싶다. 과학 중에서도 서양의학에 가장 마음이 끌린다. 왜 서양 과학 중에서 의학에 주목하게 되었나 하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어린 시절의 슬픈 경험 때문이다. (『惜別』p.220)

『藤野先生』의 막연한 「해부학 발달사」는 『惜別』에서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를 탄생시킨다. 오바마한(小浜藩)의 藩医였던 杉田玄白은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 등과 함께 네덜란드어 해부학 서적인 『Ontleedkundige Tafelen』, 일본명으론 『해부학표(解剖学表)』를 번역하여 1774년에 『解体新書』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그들은 藩이나 막부의 공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흥미에서 독자적으로 번역한 것이고 藩이나 막부는 그것을 묵인했다.

杉田玄白의 『解体新書』랑 『네덜란드학 입문(蘭学事始)』등도 그 속에 있었다. 그리하여 玄白 그룹이 고즈카과라 형장에서 죄인들의 시체를 해부할 때의 긴장감 등을 선생님은 특징 있는 어조로 들려주셨는데, 첫 강의는 나의 앞날을 암시하고 격려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깊은

- 
- 11) 외과의사는 길드를 형성한 직인(職人)이었다. 외과의사가 되려면 스승의 집에 기숙하면서 도제(徒弟)관계를 맺고 외과 의술을 배워야 했으며, 외과의사 길드가 소속된 도시의 행정당국에서 시행하는 외과의 시험에 합격해야 그 도시에 외과의사 점포를 개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외과의사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모국어 뿐이었다. 반면 내과의사는 학자였다. 그들은 김나지움이나 라틴어 학교에서 라틴어를 수학한 후 대학에 들어가 수년간 라틴어로 의학을 배웠으며, 라틴어로 논문을 써서 논문심사에 합격하면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졸업했다. 여기서 의학박사 학위는 현재와 같이 학식 있는 의학자에게 주는 명예스런 칭호가 아니라 내과 개업 면허증을 의미했다.(이중찬(2004),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참조)
- 12) 나가사키 통역원 나라바야시 친잔(榎林鎮山, 1648~1711)은 프랑스인 파레의 외과서적과 독일인 스키타테르스의 외과서적에 담긴 삽화를 인용하여 1706년에 『홍이외과종전(紅夷外科宗傳)』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 최초의 서양 의학서로서 이후 사본(寫本)으로 유포되었다.(이중찬(2004),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에서 의학 관련 부분을 참조하였다.)

감명을 받았다. 이제 내 진로를 한마디로 말 할 수 있다. 중국의 杉田玄白가 되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중국의 杉田玄白가 되어 중국유신의 봉화를 올리는 것이다. (『惜別』p.242)

1771년 3월 4일 에도의 아라카와(荒川)가 오쓰카하라(小塚原)에서 사형수의 시신을 해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참관한 杉田玄白와 前野良沢는 사체 내부가 종래 한의학에서 말하던 것과는 달리 『해부학표』의 삽화와 꼭 닮은 것을 보고 해부학 서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독자적으로 번역을 개시했다. 『해부학표』는 당시 유럽 의학계에서 超베스트셀러이자 롱셀러였던 해부서로서 1722년부터 1815년까지의 93년간 간행되었다. 이 책의 독일어판·네덜란드어판·프랑스어판은 그 나라의 외과의사들이 읽었으며, 라틴어판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내과의사들이 읽었다. 이 번역서가 간행됨에 따라 蘭學이 興隆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서양 해부학 지식이 널리 보급되었고, 의학은 蘭學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19세기 초중엽 蘭學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 서양의학은 일본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더불어 일본의 전통의학 내부에서도 서양의학과 절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작업들은 이미 19세기 중반 미국 페리 제독에게 굴복하여 開放을 선언하기 전에, 일본을 서양의학에 대해 충분한 면역력을 갖도록 훈련시킨 셈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책을 읽는 분위기가 유행했는데 그 중 옌푸(嚴復)가 번역한 『天演論』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박물학자 토머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나도 어느 일요일에 城南으로 사라졌다.

(『惜別』『사소한 기록(瑣記)』)

太宰治는 蘭醫學의 유입과 함께 번역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藤野先生』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蘭醫學 수용의 문제와 진화론 번역의 문제는 대신 魯迅의 『사소한 기록』<sup>13)</sup>에 나와 있다. 일본유학 초기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魯迅은 『절강조』8호(1903.10)에 『중국지질약론』을 기고하여 진화론의 입장에서, 당시 중국의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중국은 자연도태되어 버릴 것이라고 하며, 중국의 살길은 부국강병·식산흥업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魯迅에게도 太宰治에게도 서양은 새로운 것·이상적인 것, 동양은 구시대·구세계·이국적인 것·경험적·사변적인 것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出島の 일본인 통역자 또는 일본인 의학자들이 문제의식을 먼저 가졌다.

13) 원제는 『瑣記』 이 글은 1926.11.25. 『망위안』반월간 제1권 제22기에 발표되었다.(魯迅전집번역위원회 옮김(2011) 『루쉰전집』그린비 p.202

『解体新書』의 번역과정이 보여주듯이, 일본인 의학자들이 번역 텍스트를 독자적으로 선정한 것은, 비록 의학 지식은 서구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상징적 권력」은 일본인 의학자들이 전유하였음을 의미한다.

내 염원은 하나밖에 없다. 말하자면 동포의 新生이다. 민중의 교화 없이 무슨 혁명이고 유신이 내! 게다가 민중의 교화는 우리 학생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가! 공부해야한다! 조금 더, 조금 더 공부해야한다! 그때, 한문 번역본 『明治 維新史』를 읽었다.……「먼저 과학이다」라고 나는 유신사를 읽고 비로소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惜別』p.235)

『惜別』에서의 周樹人の 「간절한 목적」은 「단지 부모님이 의사라서 받아들인 자신도 또 의사인 나」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강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藤野先生』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太宰治가 상징한 근대의학의 위력이다. 그 근대의학의 위력은 번역에서 출발함을 읽을 수 있다. 周樹人이 읽은 한문 번역본 『明治 維新史』는 老大国 중국의 신지식인을 대변하는 周樹人の 「삶의 방향」까지를 결정짓는다.

전술했다시피, 1609년 히라도(平戸)에서 나가사키의 出島로 이전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sup>14)</sup>에는 의사가 배속<sup>15)</sup>되어 있었고, 일본인 통역관들은 이들의 의술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出島에 드나들 수 있는 일본인은 에도막부의 관리인 네덜란드 通詞와 遊女뿐이었다. 이들 통사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으리라 유추된다.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와의 무역 관계 속에서 근대 의학을 수용했으므로,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중국이나 조선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出島를 통해 네덜란드와의 무역 관계에서 수용된 의학은 처음부터 공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구적 근대로 재빠르게 나아갔던 明治 일본의 이념적 요구와 맞아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는 선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학이 수용되었기에 중국의 전통 가치 체계와의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았다.

周樹人<sup>16)</sup>이 일본의 번역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게 되듯이, 유럽의 발견을 통해 중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蘭學者들은 「일본」「일본인」「일본어」의 정체성<sup>17)</sup>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유럽 지식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풀어내었는데,

14) 1602년 암스테르담 본사 창설

15) 카피탄capitlo이라 불리는 상관장(商館長)과 명명의 상관원(商館員), 인도네시아 하인, 외과의사 1명이 상주했다.

16) 『藤野先生』에서는 「나」로, 『惜別』에서는 「周樹人」으로 서술된다.

17)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譯(1998) 『翻譯과 日本의 近代』. 이산. p.211

사전 편찬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서양의학의 모든 분야에 대한 서적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정은 이 시기 일본의 번역 문화의 발흥이라는 맥락에 깊이 맞닿아 있다.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 1811년에 蕃薯和解御用을 두었고 1856년에는 蕃薯調所로, 1862년에는 洋書調所로, 1863년에는 開成所로 발전시켜 나갔다.<sup>18)</sup>

명치유신 이후, 18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얼마나 많은 번역서들이 출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으로, 야노 후미오(矢野文雄)가 쓴 『역서독법(訳書読法)』(1883)이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요즈음 번역서 출판이 성황을 이루어 그 권수가 몇 만에 이르니 汗牛充棟이 무색할 지경이다」고 하여, 당시가 번역의 홍수시대<sup>19)</sup>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藤野先生』을 원전으로 삼는다면 재구성된 『惜別』은 분량의 확대, 시점의 변화, 의도의 곡용 등으로 원전을 해체시켜 나갔다. 이로써 『惜別』은 『藤野先生』과는 다른 별개의 원전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비판했던 부분<sup>20)</sup>은 여기서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太宰治는 혁명가 魯迅에서 별개의 유학생 周樹人을 생산해 낸 것으로서 竹内好의 날카로운 비판에서 비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전 『藤野先生』은 『惜別』의 콘텍스트로 재생산되며, 새로운 텍스트 『惜別』에 의해 원전 『藤野先生』은 해체되어 감을 읽을 수 있다. 또한 『惜別』에 나타나는 蘭醫學을 통한 서양 의학의 위력과 번역의 권력성은, 『藤野先生』의 魯迅에서 출발하여 『惜別』의 周樹人에 이르면서 상식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류는 太宰治가 일본 근대화의 성공요인으로 피력할 때 나름 어렵지 않게 언급할 수 있을 만큼,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사항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3. 텍스트의 變容

太宰治만큼 중국 작품을 자유자재로 고쳐 쓰는 작가는 드물 것이다.<sup>21)</sup> 중국에 관한 지식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작품의 배경을 日本化한다. 더욱이 분신을 등장인물과 겹쳐 놓아서

18) 姜在彦 著, 이규수 譯(1998) 『서양과 조산: 그 이문화 격투의 역사』 학교재, p.254  
 19)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1998). 앞의 책, pp.57~9  
 20) 竹内好는 「藤野先生」(『近代文學』(1947), 「花鳥風月」(『新日本文學』1956) 등의 에세이에서 太宰治가 환등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魯迅에게 유교예찬을 시켰다고 지적하며, 주관만으로 꾸며낸 魯迅像, 작자의 自畫像으로 혹평하였다.  
 21) 志村有弘·渡部芳紀 編(2008) 『太宰治大事典』 勉誠出版社 p.242

그 행동이나 회화를 통해 새로운 작품세계를 창출한다. 그 발상의 奇拔, 논의의 해학, 표현의 신선함 등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하겠다.

太宰治 중국문학과와의 관계는 주로 『魚服記』 『竹青』 『清貧譚』 『惜別』 등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에서 太宰治는 단순한 모방을 그치지 않고 공상이나 감회, 논의에 의해 이야기가 갱신되고 있다.

太宰治와 중국문학의 관계는 「수용」 「영향」 등의 영역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외국문학은 자기 동화해 가는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표현을 위한 轉義의 장치로서 있다。」<sup>22)</sup>는 것이다. 太宰治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作者는 모두, 또 작중인물이었다. 거기에 어떠한 구애됨도 없었다. 일기는 그대로 소설이고 시였다」<sup>23)</sup>고 말했듯이, 그 자신도 중국에 관한 작품을 깊이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太宰治에게 있어 魯迅의 문학도 이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생각된다. 太宰治는 『藤野先生』의 에피소드와 같은 작품을 거의 10배도 넘는 분량의 『惜別』이라는 작품으로 탈바꿈 시켰을 뿐 아니라 魯迅의 『새로 쓴 옛날이야기(故事新編)』와 같이 太宰治 자신도 일본의 옛날이야기를 재구성해낸다.

太宰治는 『惜別』 후기에서 「『惜別』은 내각정보국과 문학보국회<sup>24)</sup>의 의뢰로 쓴 소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양자로부터 의뢰가 없었어도 언젠가는 써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모으고 오랫동안 구상한 소설이다」라고 밝혔듯이, 『惜別』도 옛날이야기를 재구성해 볼 창작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魯迅의 『새로 쓴 옛날이야기』는 1922년부터 1935년 사이에 쓴 소설 8편을 수록하고 있다. 1936년 1월, 상하이 문화생활출판사에서 바진(巴金)이 주편한 文學叢刊의 하나로 처음 출판되었다. 魯迅 생전에 모두 7쇄 간행되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알 수 있다. 魯迅은 1935년 12월 26일 『새로 쓴 옛날이야기』의 「序言」에서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나는 혼자 샤먼의 석조 건물에 살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고서를 뒤적이노라면 사방에 인기척이라고는 없고 마음은 텅 빈 듯 허허로웠다. 그때 베이징의 웨이밍사에서 잡지에 실릴 원고 독촉편지가 계속 날아왔다. 나는 당시 현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 저 밑의 침전된 것을 회상하여 『아침 꽃 저녁에 줍다(朝花夕拾)』 열 편을 썼고, 고대의 전설 같은 데서 소재를 따다가 한 번에 이 『새로 쓴 옛날이야기(故事新編)』 여덟 편을 완성하고

22) 關井光男(1986) 『解釈と鑑賞』.11

23) 太宰治(1977) 「一日の苦勞」 『太宰治全集』 第10巻, 筑摩書房.

24) 1942년에 내각 정보국의 지도하에 문학자들이 국책홍보를 위해 만든 조직

자 했다.(『魯迅』3,p.257) 25)

『藤野先生』을 포함한 『아침 꽃 저녁에 줍다(朝花夕拾)』를 창작한 일 년 반 정도의 시기는 魯迅에게는 무척 가혹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자신도 도피생활을 했고 아끼던 제자<sup>26)</sup>와 청년들의 죽음을 목도했고<sup>27)</sup>,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기도 했다. 아마 「나는 당시 현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고 할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긴장했고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이다.

『새로 쓴 옛날이야기』는 여러 옛날이야기와 옛날 사람들 속에 魯迅의 사상과 현실 비판의 이야기가 숨은 그림처럼 박혀있는 소설집이다. 수록된 8편 가운데 4편이 1934년에 몰아서 창작되었다. 1936년 10월 魯迅 사망 전에 이 소설집을 서둘러 완성한 것이라 한다.

한편 太宰治도 1942년 10월호 『문예』지에 발표한 『불꽃놀이』가 검열에 걸려 삭제처분을 받자, 작품의 소재를 일본 고전 세계로 바꾸고 일본 고전문학을 패러디한 『신해석 각국 이야기』 『옛날이야기』를 잇달아 발표한다. 1944년 내각정보국과 문학보국회에서 의뢰받은 『惜別』을 집필하기 위해 魯迅 연구를 시작한다. 11월 21일 『惜別』집필을 위해 仙台로 취재 여행을 가서 45년 2월 탈고, 9월 간행된다. 계속되는 공습 속에서 『옛날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여 6월말에 완성, 10월에 연재, 간행된다. 흔히 이들은 太宰治의 중기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나 사망<sup>28)</sup>과 멀지 않은 시기의 작품이다. 魯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太宰治의 『옛날이야기』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일본의 옛날이야기가 원전이다. 그런 옛날 이야기를 공습을 피해 들어간 방공호 속에서 太宰治가 나름대로 재해석, 재구성하여 딸에게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작가 자신이 수시로 이야기에 등장하여, 방공호 속에서의 모습(머리말), 당시의 문단을 풍자한 「문학의 귀재·귀신」에 대한 야유와 결작 의식이 낳은 비극(혹부리 영감), 문학과 과학정신이야기 및 지상 세계의 비판 문제(우라시마), 이노카시라 동물원 이야기와 중년 남자의 비애(부싷돌 산), 모모타로를 생략한 이유(혀 잘린 참새)에 대해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공습의 일상화, 심각한 물자부족, 작품발표 기회의 급감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표된 작품들이다. 魯迅이 표현한 「나는 당시 현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싶지

25) 밑줄은 논자 임의 표기

26) 3.18당시 희생당한 魯迅의 제자 양더권과 류허전. 이날 시위의 선봉에 섰던 류허전이 총격을 당했으며, 동행했던 양더권 역시 그녀를 부축하다 총에 맞았고 다시 일어서던 그들은 한 병사가 휘두른 곤봉에 맞아 숨을 거뒀다. 魯迅은 이날을 「민국이래 가장 어두운 날」이라 분노했다.(루신전집번역위원회(2011) 『루신전집』그린비, 제3권)

27) 1926년 3월 18일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건. 3.18 참사라 불린다.(『華蓋集統編』「꽃없는 장미2」 참조)

28) 1948년 6월 13일 밤

않았다」와 같은 발로가 아니었을까?

많은 경우, 魯迅처럼 근대 소설의 기원을 장식하는 작품들 안에서 해외 유학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다. 정치적 식민화에 밀려가면서 문명 주체로의 전환에 서둘렀던 계몽 지식인들에게 소설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명화 도구였다. 그러나 또한『惜別』처럼 소설에 해외 유학생이 출현하고 문명의 학습처가 배경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것은 太宰治가 상상해서 그려낸 문명화의 도구였다.

仙台에서의 학교생활은 순조롭지 않았을 것이다. 패전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는 누차 쓰라린 일을 체험하고, 의학만으로는 중국을 구할 수 없다고 통감했다. 1906년 魯迅은 仙台醫學專門學校를 그만두고 귀국하여 고향에서 교원생활을 보내게 된다.

근대의 유학생에게는 문명국의 학습처인 도시는 그 자체로 충분한 학교역할을 담당했다. 이 거대한 학교는 魯迅에게 중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추하게 했다. 『藤野先生』에서 한발 나아가 재구성된 太宰治의 『惜別』은, 유학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시적 삶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사화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야만의 농촌으로 표현되었다.

聖賢의 말씀은 생활의 허식으로서 사용되어 공연히 신선의 미신만 유행하고, 병자는 값은 터무니 없이) 비싸나(사실은) 찢어진 북가죽으로 만든 환약을 강매당하며 나날이 쇠약해질 뿐이다. 이 중국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참한 현실에 분노해서 나는 일시적으로 영혼을 서양인에게 맡기고 서양학문을 추구한 것이다. 어머니를 등지고 고향을 버린 것이다. 내 염원은 하나밖에 없다. 말하자면 동포의 新生이다. 민중의 교화 없이 무슨 혁명이요 유신이나! 29)

(『惜別』p.235)

유학생 周君이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서사에서는 문명과 야만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마침내 서사들은 문명 주체로 거듭나는 장면으로 周君을 인도한다. 『藤野先生』에서의 단편적인 표현에 비해, 『惜別』에서 드러나는 유학처의 모습은 일본에 대한 동경으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출발 서사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서사화에서도 문명화를 하나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中野重治의 魯迅 像의 강직함은 작품을 연계시킨 『惜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惜別』을 통해서 작가가 周樹人의 마음을 필요이상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역시 세련되지 못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일본에 대한 周樹人의 인상을 미화시키고 있고 중국에 대한 자괴감을 적극 드러내고 있음이 진부한 흐름이다.

29) ( )부분 논자 임의 보완.

太宰治는 자신과 아주 가까운 형태로 묘사하고자 했기 때문에 老醫師의 회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했다. 물론 太宰治는 竹内好의 『魯迅』을 읽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自戒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추측된다. 그리하여 작가 자질의 문제는 접어두고 太宰治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젊은 날의 周樹人の 모습을 「올바르게 사랑하자」라는 방향으로 작품의 비중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藤野先生』의 魯迅도 『惜別』의 周樹人也 「일본에서 의학을 수학하고」「귀국하여」「민중의 교화」를 꾀하고 「새로운 支那의 건설」을 위해 진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유학생 周樹人은 많은 부분 자국인 중국을 비판하며, 거듭하여 일본유학 목적을 피력한다.

지금의 청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타적이다. 알 수 없는 자부심에 빠져 있다. ……자만을 버리고 우선 서양 과학의 폭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혐오라고 할까, 우리 동포의 무사태평한 얼굴을 보면 부끄럽고 부아가 치밀어 건딜 수 없다. 아! 중국 유학생이 한명도 없는 곳으로 가자. ……혼자서 의학공부에 전념하고 싶다. (『惜別』p.237)

중국의 민중은 과거 유산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현대라는 시대 흐름에 뒤쳐진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자부심」에만 빠져 새로운 시대에 대처해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용 없이 모양뿐인 가르침은 이미 민중의 생활에서 유리되어, 공연히 「허식」으로서만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사물의 본질을 간파한 민중의 자세는 없고, 단지 몽매한 정신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수렁화한 정신, 혹은 맹목의 눈을 어떤 형태로 각성시키는 것은 의학 즉, 과학이라는 인식으로 魯迅은 종착하고 있다. 과학이야말로 「열국의 부강의 원동력」이고 민중 「교화」로의 최단거리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周樹人이 일본에서 본 것은 기술로서의 과학이 아니고 정신으로서의 과학이고 과학이 발전하는 토양으로서의 사상이었다.

일본에 와서 곧 이 나라의 의외의 긴장을 발견하고 여기에는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예감했다. ……「일본에는 국체의 실력이라는 것이 있다」 ……국체의 정화이다. 백성의 신성한 본능이다. ……천황폐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라고 시원하게 단언하고 있군요. 이제 natürlich(자연스러운)이군요. 일본인의 사상은 전부 忠이라는 관념에 einen(통일)되어 있군요.(『惜別』p.277)

太宰治는 마침내 「나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철학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충이라고 하는 통일철학이 먼 옛날부터 육화된 것이 일본인」이라고 周樹人에게 율게 한다. 의학 즉,

과학을 배우러 왔지만, 그 전에 국력의 근원을, 발전 기반의 뿌리를 하나의 「정신력」으로 周樹人을 보게끔 이끈다. 露日전쟁의 결과도 서양과학에 대한 靈力 즉, 충효 사상과 국체의 결속력의 승리라고 인식시킨다.

23년 전에 장지동이 지은 유명한 『勸學篇』등에서도 일본 유학의 필요성이 크게 역설되었다. 일본이 소국인데도 부흥한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이토, 야마가타, 에노모토, 무쓰 등은 20년 전 서양에 유학했다. 조국이 서양의 위협을 받는 것에 분노하여 동지 백여 명을 이끌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가서 정치, 상업, 또는 수륙 병법을 배워 학문을 이루고 돌아와서는 장관이 되어 정계를 쇄신한 동방의 영웅이다라는 논조로 일본을 칭찬했다.(『惜別』p.229)

周樹人에게 일본을 찬미시켜 중국의 후진성을 단순한 도식으로 비판시키고 있는 것에는 작가 太宰의 중국 인식의 만만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전쟁에 있어서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바보스런 부모라도 어쨌든 피투성이가 되어 싸움을 하여 패색이 짙어도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아들이야말로 이질적인 것은 아닐까요?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나의 실감이었습니다」<sup>30)</sup>라는 문장을 서로 겹쳐 보면 전쟁하의 太宰治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전쟁의 수렁 속에서도 일본의 정신적 토양을 응시하려고 하는 작가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惜別』 冒頭에서, 정치적으로 대동아회의에 대한 비판을 내비치면서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太宰治의 실감을 자백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군부나 대동아회의에 저항을 나타내더라도 일본인 공통발상의 근원을 「충효」라는 개념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獨立親和」<sup>31)</sup>의 정신, 이념을 작중인물에 담으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올바르게 사랑하려고」한 나머지 등장인물의 성격이 좋은 점만이 전면에 부각되어 다면성 있는 실체로서 인간의 무게를 조금 결여한 인물 조형이 되고 만 점은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일본에는 국력의 실체라는 것이 있다!」……「明治維新은 절대로 네덜란드학 연구자들에 추

30) 『返事』「東西」1946년 3월

31) 「대동아공동선언 5원칙(大東亞共同宣言原則)」은 「共存共榮」「獨立親和」「文化昂揚」「經濟繁榮」「世界進軍貢獻」이 채택되었고, 이 중 「獨立親和」에 대해서는 「대동아 각국은 상호 자주독립을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사이 좋게 지내면서 친화를 확립한다」라는 내용을 기조로 하고 있다. 「대동아공동선언」이 「문화보국」에 발표되자,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5원칙의 작품화 기획이 추진되고, 소설부는 5원칙을 테마로 하여 「웅대한 규모의 구상을 가진 소설을 창간·간행하고, 대동아 각 국민에게 황국의 전통과 이상을 선포하여 공동 선언의 대정신을 침투」시킬 것을 결정했다. 『惜別』은 이러한 기획에 따라 집필된 것이다.(權錫永(1994)『國語國文學研究』 p.30)

진된 것이 아니다……維新思想의 원류는 역시 国学이다……이것이 일본의 강함이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일단국가가 위기를 맞이하면 새끼가 어미새 주위로 모여들 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와서 황실을 받든다……「그러면 당신은 일본에는 서양과학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惜別』p.275)

『惜別』은 국가라는 시대적 외압의 장벽에 얽매어서 문학적으로 승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인간의 행위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惜別』 속의 인물들을 통해, 시대와 삶에의 순응이라는 인간적인 모습은, 또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결국 국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도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책임이 있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인식을 지닌 太宰治는 『惜別』의 다양한 작가의식의 분신으로 그려진 인물들을 통해, 일본 부각이라는 목표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太宰治는 그의 사고를 장편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원전텍스트의 인용과 변형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즉 문학을 통한 국가 혹은 권력에의 순응이다.

『藤野先生』보다 강화된 『惜別』의 인물들을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太宰治의 전쟁인식은 표현되고 있다.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국가지향의 의식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太宰治의 언어적인 풍부함은 짧은 원전을 길게 늘려 팽창시키는 다변 능력의 탁월함을 『惜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魯迅과 周樹人을 작가가 동일화하고 인물들 마음의 미묘한 굴곡을 깊이 모색해서 어떤 한 곳에서 절규의 목소리로 관통해 가는 것에 太宰治의 언어의 진면목이 있다.

그는 고전이나 민화, 다른 사람의 일기나 편지를 토대로 해서 자유자재의 언어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藤野先生』에서 『惜別』로의 그 증식된 언어공간 속에서 魯迅이 지닌 주체에 대한 인식과 과학에의 갈망은, 周樹人이 획득해가는 国体の 인식과 「국가정체성의 진수」와 그것을 받드는 「백성의 신성한 본능」은 그저 언어의 낭만주의로 치부하기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나아가 『藤野先生』에서 그저 친절했던 노교수를 그리워했고 중화민족의 현실을 안타까이 여겼고 그 노대국의 미래를 위해 유학처에서 근대의 주체로서 인식해가던 유학생 魯迅이, 『惜別』에서는 일본의 명치유신 성공요인이 蘭學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国體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칭송하기까지 하는 周樹人으로 변용되어가는 양상을 읽을 수 있었다.

## 4. 텍스트의 再生

周씨가 여름 방학 때 동경에 가서 먼저 느낀 것은 맹렬한 기세의 문학 쓰나미가 아니었을까? 서점의 문학서적의 홍수가 아니었을까?……늘 그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는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자국 청년들의 혁명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 의학과 문학과 혁명과, 바꾸어 말하면 과학과 정치와 예술의 세 가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그가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惜別』p.309)

일명 「환등기」사건을 겪으면서 魯迅은 「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로구나! 그때 그곳에서 나의 생각은 변했다」로 의학에서 문예로 돌아선 것으로 표현된다. 문예로 돌아선 魯迅에게 문학뿐만이 아닌 미술 속에서도 그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魯迅의 그림 중 『藤野先生』과 가장 관련이 깊은 그림은 解剖圖 그림일 것이다. 아래는 仙台医專 재학 당시 魯迅이 그린 解剖圖이다. 붉은색으로 주의라고 쓴 부분은 藤野 교수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쳐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외로 『藤野先生』이 실린 『朝花夕拾(아침 꽃 저녁에 줍다)』을 비롯하여 몇 편에서 魯迅이 미술에 관해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0편의 신문이 수록된 『朝花夕拾』의 표지이다. 이 그림은 『墳』의 표지를 그렸던 타오위안칭(陶元慶)의 작품이다. 魯迅은 첫 페이지에 「陶元慶이 표지 그림을 그렸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출판사에 직접 부탁했다<sup>33)</sup>고 한다.

魯迅이 본인의 작품집 중에서 그림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2작품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논자가 파악하기로는 魯迅의 작품은 『呐喊』 7편, 『墳』 23편, 『熱風』 32편, 『彷徨』 8편, 『野草』

32) 司徒喬 『회초리를 놓아라(鞭を放せ)』 125×178cm 유채 1940년 중국 미술관 사진제공 · 중국 유화연구학회

33) 魯迅전집번역위원회 옮김(2011) 『루쉰전집』그린비 p.2

24편, 『朝花夕拾』 12편, 『故事新編』 9편, 『華蓋集』 22편, 『華蓋集續編』 21편, 『華蓋集續編의 續編』 6편, 『而已集』 24편, 『集外集』 1편, 『三閒集』 24편, 『二心集』 26편, 『南腔北調集』 34편, 『偽自由書』 37편, 『准風月談』 59편, 『花邊文學』 50편, 『詩』 1편, 『中國小說史略』, 『漢文學史綱要』, 『古籍序跋集』, 『訛文序跋集』, 『兩地書』, 日本語로 쓴 문장, 解説, 서신, 일기 등의 작품들이다.

그 중 그림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而已集』의 「陶元慶君의 繪畫 展覽會를 둘러보고」가 있고, 『三閒集』의 「司徒喬君의 그림을 보고」가 있다. 이 중 陶元慶君이 바로 『墳』과 『朝花夕拾』의 표지그림을 그린 장본인이다. 魯迅은 陶元慶의 그림을 좋아한 듯하다. 1927년 12월 13일 상해에서 魯迅이 쓴 「陶元慶君의 繪畫 展覽會를 둘러보고」에서 그가 그림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두세 가지를 남기고 있다.

陶元慶君의 그림 전람회는 내가 북경에서 본 것이 첫 번째이다. 그때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陶君은 새로운 형식, 특히 새로운 색채를 가지고 그 자신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시 중국 옛부터의 魂 - 만약 도안의 표면적 느낌이 관념적인 것을 피한다면, 즉 민족성이 있다고

나는 이 나의 말을 지금 상해에서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陶元慶君의 繪畫 展覽會를 둘러보고」)

1900년대 초, 중국의 일부 선각자들은, 분명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낡은 역사를 가진 나라의 청년들이 낙후되는데 대한 초조함이라고 魯迅은 생각한 듯하다. 세계의 시대사조는 사방팔방으로부터 몰려들어 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직 3000년래의 낡은 쇠고랑, 속박에 묶여 있는 셈이다. 거기에서 눈을 뜨고 발버둥치고 반항하고 뛰어 나와서 세계의 사업 즉, 魯迅은 범위를 조금 좁혀서 문학예술의 사업으로서 두고, 거기에 참가를 독려한다. 만약 중국이 세계의 동료에게 들어갈 수만 있으면, 이러한 상황을 魯迅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외국의 많은 예술인들은, 자연에 대하여 반역하고 자연을 가르고 개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예사 분야에서는, 손에 익어 온 지금까지 영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온 낡은 척도를 버리고, 각 시대 각 민족 고유의 척도를 달리 삼고, 각 시대 각 민족의 예술을 평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고분의 회화를 찬탄하거나, 흑인들의 칼 무늬나 조각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가들의 용감한 반역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주 감탄케 한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그동안 뒤떨어져서 지금까지의 사업에도 참가하

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예술을 너무 공손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그것이 다시금 일종의 존경해야만 하는 새로운 속박이 되어 암암리에 퍼지는 것은 아닌지 魯迅은 우려했다.

陶元慶군의 그림에는 이 이종의 쇠고랑 속박이 없다. 그것은 내외양면에서 볼 때, 모두 세계의 시대사조에 일치하고, 게다가 중국의 민족성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술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지만, 문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주의하고 있다.

(「陶元慶君의 繪畫 展覽會를 둘러보고」)

魯迅은 예를 들어 口語文, 특히 세상에서 일컫는 「歐化文体」에 대해 언급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배척해서 말한다. 이러한 문체를 사용해도 애석하게도 피부색은 희지 않고, 코는 높지도 않는데! 라고. 진정 말 그대로이고, 이 충고는 호되다. 그러나 피부가 희고 콧대가 높다면 그 사용하는 말은 유럽어일 것이고, 구화 문체가 아닐 것이다. 피부가 희지 않고 콧대가 높지 않은 주제에, 「적가마니(的, 呵, 嗎, 呢 모두 중국의 구어 문장의 조사)」를 사용하려고 한다. 게다가 하나의 句에 「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함부로 사용한다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것이, 오늘날 중국의 모습이다.」라고 개탄한다.

그러나 魯迅은 결코 陶元慶군의 그림을 구화 문체에 비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듯하다. 魯迅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는 『지호자야(之乎者也 모두 중국의 문어문의 조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형과 새로운 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Yes』 『No』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결국은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터계로 측량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漢代의 척도라든가 清代의 판단기준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이미 현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짐작컨대 오늘날 세계의 사업에 참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척도로 헤아려야만, 비로소 그의 예술은 이해가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술에서도 민족개조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비판적이지만 합리적인 면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또한 魯迅 서거 때 遺影을 그린 「고구마 그림장이」스즈차오(司徒喬)도 魯迅과 관련이 깊다. 1928년 3월 14일 밤, 상해에서 『司徒喬군의 그림을 보고』를 남겨서 그에 대한 魯迅의 우정과 화가를 통한 魯迅의 한 면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司徒喬군의 이름을 안 것은 4, 5년 전의 일로, 그 무렵은 북경에 있었지만, 그는 수업도 빼먹고, 지도자도 없이 자신 힘만으로, 종일 낡은 묘, 築山, 폐가, 貧民, 거지… 등을 그리고

있었다. (「司徒喬군의 그림을 보고」)

1902년 司徒喬<sup>34)</sup>는 廣東省 開平市の 농촌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아버지가 廣州 嶺南大學 부속 초등학교의 직원이 되고, 학교관계자의 자제로서 학비면제의 조치를 받고, 미국령 교회학교로 나갈 수 있었다. 그의 먼 친척적인 교장의 취미가 회화라서, 그림물감 상자나 이젤을 나르는 동안 점차로 회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18세 나이로 嶺南 文學院에 입학한다. 1924년에는 北京、燕京大學 神學院에 학비면제의 대우로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학 수업에 점차로 반감을 느끼게 된 그는, 수업 등은 거들떠보지 않고 스케치북을 안고 옛날 묘나 산 빈민굴 가난한 사람들 거지 등, 눈에 띄는 모든 것을 하루 종일 그리게 되었다. 1926년 6월 그는 십여 점의 작품을 中山公園 내에 전시하여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 중 2점을 魯迅이 구입하여 콜렉션으로서 간직하게 되었다. 신학원 졸업 후는 목사의 길을 거부하고 빈민굴에 살면서 고구마를 값아먹으며 굶주림을 견뎌내어, 자신을 「고구마 그림장이」라고 칭하였다. 1926년 작품 「被壓迫者」 등 10점이 民國美術박람회에 입선한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남쪽에서 온 유랑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찡뚱에 틀림없다. 누런 먼지가 하늘 가득 자욱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세속적인 색깔이 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인 것이다. 주홍과 푸른색 지붕, 새하얀 바위 난간 금색 불상, 두껍고 거친 의복, 검붉은 얼굴, 깊고 많은 주름…… 대략 이런 형상이 거친 자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베이징 전시회에서 나는 중국인의 이러한 자연에 대한 불굴의 씩씩함을 표현한 작가의 영혼을 보았다. (「司徒喬군의 그림을 보고」)

이와 같은 魯迅의 評처럼, 1928년 두 번째 개인전이 예술관계자에게서 주목받았고 당시의 고명한 화가였던 徐悲鴻에게서는 「司徒喬의 색채감각은 당대 가장 뛰어나고 예민하다」는 批評을 받았다. 1936년 상해로 옮기고 魯迅의 서거에 즈음해서는, 遺影을 그렸다.

그의 창작은 생애 최하층 사람들을 테마로 하고 있다. 붓으로 사회의 부정과 가난한 사람들에의 공감을 호소한 그는 「인민예술가」라고 칭해졌다. 그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34) 본문 설명 이후의 참고사항은 이하와 같다. 1931년 레이난(嶺南) 대학에 가서 서양화 교사가 되었다. 1936년 南京으로 옮겼고 다음해,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그의 친구 집에 보존되었던 12년분의 작품, 일기, 서적 등이 모두 燒失되었다. 1938년부터는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요양 생활을 보내며 개인전을 열었다. 1942년 귀국 후는 서북부의 五省에 걸쳐 재해지역을 방문하며, 사실 묘사한 작품을 완성하여 개인전을 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950년 미국에서 귀국 후는, 혁명박물관의 개관 준비에 종사하고 혁명역사화, 초상화, 삽화 등의 창작 후, 1958년 2월 16일 56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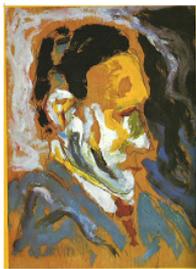
油彩画家이었다. 생활상의 고난도 그의 창작에의 정열을 마멸시킬 수 없었고, 오히려 용기를 내게 하고 영감을 주었다. 심각성을 추구하는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회초리를 놓아라(鞭を放せ)」도 실로 그러한 걸작 중의 하나다.

작품은 40년대 고난의 항일전쟁이 한창인 때에 그려졌다. 당시 거리에 넘쳐나는 난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 작품의 연극이 시리즈로 상연되었고 「회초리를 놓아라」도 그 중 하나였다. 연극은 거리를 떠돌면서 東北地方에서 河北地方을 유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주인공이었다. 딸은 공연 도중에 굶주린 나머지 쓰러져버린다. 아버지는 발끈 해서 딸을 회초리로 때리고는 곧 후회한다. 뒤에서 위로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딸은 말한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때린 것이 아니고, 괴물이 때린 거니까요. 괴물은 침략자 일본인을 가리킨 말로, 이 대사는 그들이 일으킨 죄악을 추궁하는 것이었다. 연극은 1940년 말레이시아에서도 상연되었고, 병을 무릅쓰고 보러 간 司徒喬는 몹시 감동하여, 동명의 그림이 탄생하게 되었다. 작품에는 부녀의 정경을 통해서 소녀의 사랑과 미움, 조국에 대한 불타오르는 화가의 생각이 표현되고 있다.

중국 전체 국토는 반드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장래 割拠하는 일만 없다고 하면, 청년이 역사를 깊어지고 黃塵의 중국 색을 열심히 털어내는 것, 우선 무엇보다도 이것이 먼저라고, 나는 생각한다. (「司徒喬군의 그림을 보고」)

이전 마음을 안 것인지 魯迅은 일찍이 1928년에 위와 같이 적고 있다. 미술을 통해서도 화가와 작가가 서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太宰治도 직접 그림을 그렸다. 太宰治가 그린 그림들은 1940년부터 본격적으로 볼 수 있다. 아래 「自画像」들은 1947(昭22)년 경 그린 것으로 화가 사쿠라이 하마에(桜井浜江)의 미타카(三鷹) 아뜨리에에서 유화로 그렸다. 桜井浜江는 아мага타현(山形県) 출신의 양화가로 太宰治와는 문학적 동료이고, 그의 단편 『향응부인(饗応夫人)』의 모델로도 알려졌다.



35)



36)



37)

1940(昭15)년 경 太宰治는 히레자키 준(鱒崎潤)의 화실에 출입하고 유화를 그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한다. 太宰治는 東京美術學校에 진학한 형 圭治의 영향도 있고 해서, 중학시절 한동안 스스로 편집한 同人雜誌의 表紙 디자인이나 포스터를 취급하는 등 미술에도 열중해서 미술과 문학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망설였다고도 한다. 문학으로 정한 후에도 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은 계속되어 화가친구도 많았고, 그들의 아틀리에에서 직접 작업한 것도 있었다. 또 붓으로 글쓰기를 좋아해서 취하면 기분 좋게 부담 없이 휘호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아마 鱒崎潤의 그림도 그런 것 중 하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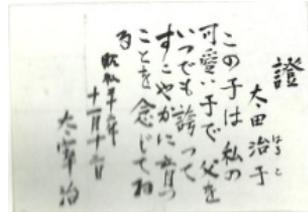
太宰治의 그림은 꽤 스피드 있게 그려진 듯하다. 특히 일본화인 席画는 술 취한 나머지 그 일흥으로 순식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가츠라 히데유키(桂英澄)에게 준 철쭉 그림도 三鷹의 술집에서 많이 마시고 귀갓길에 들고 간 철쭉을 이부세 마스지(井伏鱒二)가 보내온 히젠야키(備前焼)<sup>38)</sup>의 항아리에 꽃고 그린 것이다. 먼저 먹으로 선을 치고 붉은 색을 나중에 점점이 넣었다고 한다. 불과 3분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한다.<sup>39)</sup> 일필로 그린 항아리의 선 등이 전문가인 화가도 감탄할 정도로 힘이 넘친다.



40)



41)



42)

위 작품이 언제 그려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静子에게 전달 된 것은 명확히 나타난다. 年譜를 참조하면, 静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1947년 1월 6일, 3년만

35) 太宰治의 「自画像」 1947(昭22)년 경  
 36) 鱒崎潤의 유화, 글씨는 太宰治.(昭15년 경)  
 37) 桂英澄에게 준 日本畫(昭19년)  
 38) 備前は 지금의 오카야마현(岡山県)남동부로, 備前에서 산출하는 무유약 자기의 총칭.  
 39) 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太宰治』新潮社,1984,p.62  
 40) 太宰治가 그린 유화로 모델은 太田静子이다. 太田 静子(おおた しずこ 1913年(大正2年)8月18日 - 1982年(昭和57年)11月24日)는 滋賀県 出身의 歌人,作家. 太宰治의 愛人중 한명.『斜陽』에 材料를 提供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作家인 太田治子の 어머니.  
 41) 太田 静자와 太田治子の 모습, 1948年(昭23) 경.  
 42) 太田 静子에게 전해준 證書

에 太宰治와 재회한다. 太宰治로부터 소설의 소재로써 일기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받은 静子は 「시모소가(下曾我)까지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太宰治를 下曾我에서 맞이한다. 이 때 약속대로 일기를 제공한다. 이 일기가 그 뒤 『斜陽』의 재료가 되었다. 이 때 静子は 太宰治의 아이, 후에 작가가 된 太田治子를 수태 한다.

5월 24일 静子は,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상담으로 三鷹의 太宰治 집을 방문하나, 太宰治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입는다. 자신에게 접근해 온 것은 소설의 재료만이 목적이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는다. 이 때 静子は, 太宰治의 새로운 애인인 아마자키 토미에이(山崎富栄)와 마주친다. 이어 5월 25일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는 太宰治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눈물을 흘리며 항의한다. 그러나 静子は 太宰治가 자신을 모델로 그린 유희를 받아들고 下曾我로 돌아간다. 이 날이 살아있는 太宰治를 만난 마지막이었다.

이윽고 11월 12일, 静子は 太宰治의 아이를 출산하고, 11월 15일 그녀의 남동생 通가 三鷹를 방문해서, 太宰治에게 신생아의 命名과 認知를 신청한다. 太宰治는 「이 아이는/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로/아버지를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며/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sup>43)</sup>」라는 인지서로 인정한 후, 스스로 本名·津島修治에서 한 자를 따서 「治子(하루코)」라고 命名한다. 출산으로 인해 静子は 가족으로부터 의절 당하나 太宰治로부터 월 1만엔의 양육비는 약속받는다.

1948년 6월 13일 太宰治가 애인 山崎富栄와 투신하여 자살에 성공한다.<sup>44)</sup> 8월 1일, 井伏鱒二들이 静子를 방문하여 「太宰治의 명예나 작품에 관한 언동을 모두 조심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놓고 그 상환으로 『斜陽』 改装版의 인세 10만엔을 건넨다. 그러나 静子は 太宰治 본가인 津島家로부터의 푸대접에 참기 힘들어, 10월 이 맹세를 깨는 형태로 『斜陽日記』를 간행한다. 이 일기의 내용에 『斜陽』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太宰治 死後에 날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나오고, 静子は 또 한 번 슬퍼했다<sup>45)</sup>고 한다.

한편 『惜別』에서 문학가 太宰가 추구하고자 했던 한 분야는, 魯迅이 과학으로의 구국 사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여 문예에의 길로 전환하려고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周樹人의 고민과 번뇌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현실 세계를 변혁하는 것은 외발적인 방법보다도 내발적인 방법 쪽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43) 「この子は / 私の可愛い子で / 父をいつでも誇って / すこやかに育つことを念じてゐる」

44) 잘 알려져 있다시피 太宰治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였고, 마지막 동반자살을 제외하고도,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여자만 죽은 경우도 있다.(志村有弘·渡部芳紀 共編(2005) 『太宰治大事典』 勉誠出版)

45) 1950년(昭和 25년) 11월, 『가련한 나의 노래(あはれわが歌)』를 지프사로부터 간행한다. 이후는 가정부나 보모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津島家로부터의 차별대우에 괴로워하면서도, 静子の 남자 형제 등의 지원, 협력도 얻어 딸 治子를 길러냈다. 만년 간암, 게다가 너무 늦게 발견되어, 수술과 治子の 간호도 허무하게 1982년(昭和 57년) 11월 24일, 69세로 사망한다.

생각했기 때문인지 魯迅은 의학을 버린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극도로 회의적인 太宰治 특유의 표현으로, 他者와의 내적 가교를 두지 않고 꿈틀거리는 내적 세계를 그대로 응시하는 太宰治의 모습이 비춰졌다.

신변소설 『藤野先生』에서 魯迅 자신의 영혼의 절규가 절절한 형태로 전해져 온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太宰治에게는 『惜別』을 쓰는 것으로 尾崎秀樹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시대에의 기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太宰治가 새로운 시대에의 개인적 재생을 회구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추측된다. 시는 방법을 변환하여 예전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재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리라. 흔히 太宰治 중기 작품이라 할 수 있는 『惜別』과 『옛날이야기』에서도, 그때까지의 자기 부정과 재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방향에 太宰治의 魯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한편의 문학작품보다 회화 한 점이 많은 시사점과 다양한 해석을 내포할 때가 있다. 魯迅의 의학에서 문예로의 회심의 고뇌나 太宰治의 자기 부정과 재생으로의 시도는, 「陶元慶君의 繪畫 展覽會를 둘러보고」와 「司徒喬君의 그림을 보고」나 太宰治의 「자화상」, 「靜子の 초상화」등에서 증폭되어 재생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 5. 맺으며

仙臺의 医学專門學校에서 魯迅이 유학한 사실로 부터, 魯迅은 『藤野先生』을 썼고, 太宰治는 『惜別』을 남겼고, 藤野巖九郎은 「周樹人君을 회상하며」를 남겼다. 이들 텍스트는 순차적으로 콘텍스트의 역할을 담당하며 중일관계 속 정치와 문학을 마름질해간다.

일본문학보국회로부터의 의뢰를 받고 집필한 전기소설 『惜別』은 내용의 是非는 별개로 하더라도 역시 국책수행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임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太宰治는 蘭医学의 공로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근대 일본의 개혁이 성공적이었음을 자부하고 있었던 듯하다. 『惜別』에는 이런 근대 초기 성공한 일본의 의학 유입 및 번역의 공로, 위생 도시에 대한 의지가 거듭 서술되고 있다.

『藤野先生』에서의 젊은 시절 만난 친절한 노교수를 추억한다는 일종의 身邊小說이고 단편적인 표현에 비해, 『惜別』에서 드러나는 유학처의 모습은 일본에 대한 동경과 차별적 시각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中野重治가 평한 魯迅 작품의 강직함은, 『惜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惜別』은 작가가, 朱君의 마음이나 미개 중국 상황을 필요이상 설명하고 있어 역시 국책수행 작품의 진부함과 세련되지 못한 면을 드러낸다.

『藤野先生』에서 『惜別』로의 그 증식된 언어공간 속에서 魯迅이 지닌 주체에 대한 인식과 과학에의 갈망은, 周樹人이 획득해가는 国體의 인식과 「국가정체성의 진수」와 그것을 받드는 「백성의 신성한 본능」은 그저 언어의 낭만주의로 치부하기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나아가 『藤野先生』에서 그저 친절했던 노교수를 그리워했고 중화민족의 현실을 안타까이 여겼고 그 노대국의 미래를 위해 유학처에서 근대의 주체로서 인식해가던 유학생 魯迅이, 『惜別』에서는 일본의 명치유신 성공요인이 蘭學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國體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칭송하기까지 하는 周樹人으로 변용되어가는 양상을 읽을 수 있었다.

가끔씩 한편의 문학작품보다 회화 한 점이 많은 시사점과 의미를 내포할 때가 있다. 본고를 통해 魯迅의 많은 작품 중에서 그림에 관한 두 비평을 찾을 수 있었는데, 「陶元慶君의 繪畫展覽會를 둘러보고」와 「司徒喬君의 그림을 보고」가 그것이다.

이들 비평문 속에서도 역시 魯迅은 「새로운 세계 사조를 따르지만 중국의 민족성을 잃지 말 것」,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허식주의인 중국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거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는 중국 민중에 대한 사랑」, 「침략자에 대한 민중 나름의 저항」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반면 太宰治는 문학과 미술 양쪽에 모두 소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가들과도 교류가 많았고 그들의 아틀리에에서 직접 작업도 하였다. 그의 미술작품은 번득이는 직감과 색채감과 필치로 기존 화가들의 평도 좋았다. 특히 太田靜子의 초상화는 작가 太宰治의 복잡하고 허무적이고 다소 퇴폐적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신변소설 『藤野先生』에서 魯迅 자신의 영혼의 절규가 절절한 형태로 전해져 온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太宰治에게는 『惜別』을 쓰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에의 개인적 재생을 회구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추측된다. 사는 방법을 변환하여 예전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재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리라. 흔히 太宰治 중기 작품이라 할 수 있는 『惜別』과 『옛날이야기』에서도, 그때까지의 자기 부정과 재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방향에 太宰治의 魯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藤野先生』과 『惜別』은 개별 텍스트로서도 중요하지만 상호 보완하여 콘텍스트의 역할을 강화할 때 그 특징과 차이를 명확히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中野重治(1977) 『中野重治全集』20권 筑摩書房  
 志村有弘·渡部芳紀 編(2008) 『太宰治大事典』勉誠出版社  
 太宰治(1983) 『太宰治全集』7권 筑摩書房  
 太宰治, 서재곤 옮김(2011) 『津軽·惜別·お伽草紙』문학동네  
 山寄一穎 編著(1989) 『森鷗外』有精堂  
 飛鳥井雄道(1976) 『鷗外その青春』角川書店  
 小堀 桂一郎(1969) 『若き日の森鷗外』東京大学出版部  
 石黒忠恵(1983) 『懐旧九十年』岩波文庫  
 望田幸男(2007) 『近代日本とドイツ』ミネルウア書房  
 長谷川泉(1974) 『森鷗外文学の位相』明治書院  
 太宰治(1985) 『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新潮出版  
 太宰治(1991) 『惜別』新潮文庫  
 魯迅 著·한무희 訳(1992) 『魯迅文集』제2권, 일월서각  
 魯迅문학회편역(2003) 『魯迅선집』여강출판사  
 魯迅전집번역위원회 옮김(2011) 『루쉰전집』그린비  
 竹内好(1944) 『魯迅』日本評論社  
 山田野理夫(1969) 『仙台時代の魯迅の師友』岩波書店  
 半沢正二郎(1966) 『魯迅·藤野先生』日中出版  
 丸山昇(1965) 『魯迅その文学と革命』平凡社  
 半沢正二郎(1966) 『魯迅·藤野先生』日中出版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지음(2006)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동녘  
 위엔량권 著·구문규 訳(2003) 『魯迅 잡문예술의 세계』学古房  
 박홍규(2002) 『자유인 魯迅』우물이 있는 집  
 森川潤(1997) 『ドイツ文化の移植基盤』雄松堂出版社  
 ヘンリー・ダイアー(1999) 『大日本』実業之出版社  
 이종찬(2004)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문학과지성사  
 柄谷行人 著·박유하 옮김(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오로다케시 지음·신유미 옮김(2005) 『일본문학과 몸』열린책들  
 馬伯英·高翀·洪中立 著, 정우열 訳(1979) 『中外医学文化交流史』전과과학사  
 『国文学』(2005) 学灯社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訳(1998) 『翻譯과 日本의 近代』아산  
 姜在彦, 이규수·訳(1998) 『서양과 조선: 그 이문화 격투의 역사』학고재  
 志村有弘·渡部芳紀 共編(2005) 『太宰治大事典』勉誠出版

---

논문투고일 : 2011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0일

---

---

 <要旨>
 

---

###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越境과 再生 -『藤野先生』과 『惜別』을 중심으로-

仙臺의 醫學專門學校에서 魯迅이 유학한 사실로부터, 魯迅은 『藤野先生』을 썼고, 太宰治는 『惜別』을 남겼고, 藤野巖九郎는 『周樹人君을 회상하여』를 남겼다. 이들 텍스트는 상호 콘텍스트의 역할을 담당하며 中日關係 속 정치와 문학을 마름질해간다. 太宰治는 蘭醫學의 공로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근대 일본의 개혁이 성공적이었음을 자부하고 있었던 듯하다. 『惜別』에는 이런 근대 초기 성공한 일본의 의학 유입 및 번역의 공로, 위생 도시에 대한 의지가 거듭 서술되고 있다. 『藤野先生』에서의 젊은 시절 만난 친절한 노교수를 추억한다는 일종의 身邊小說이고 단편적인 표현에 비해, 『惜別』에서 드러나는 유학자의 모습은 일본에 대한 동경과 차별적 시각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中野重治가 평한 魯迅 작품의 강직함은, 『惜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惜別』은 작가가, 周君의 마음이나 미개 중국 상황을 필요이상 설명하고 있어, 역시 국채수행 작품의 진부함과 세련되지 못한 면을 드러낸다.

가끔씩 한편의 문학작품보다 회화 한 점이 많은 시사점과 해석을 내포할 때가 있다. 본고를 통해 魯迅의 많은 작품 중에서 그림에 관한 두 비평을 찾을 수 있었는데, 『陶元慶君의 繪畫 展覽會를 둘러보고』와 『司徒喬君의 그림을 보고』가 그것이다. 이들 비평문 속에서도 역시 魯迅은 「새로운 세계 사조를 따르지만 중국의 민족성을 잃지 말 것」,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허식주의인 중국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거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는 중국 민중에 대한 사랑」, 「침략자에 대한 민중 나뭇의 저항」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반면 太宰治는 문학과 미술 양쪽에 모두 소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가들과도 교류가 많았고 그들의 아틀리에에서 직접 작업도 하였다. 특히 太田靜子の 초상화는 작가 太宰治의 복잡하고 허무적이고 다소 퇴폐적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藤野先生』과 『惜別』은 개별 텍스트로서도 중요하지만 상호 보완하여 콘텍스트 역할을 강화할 때 그 특징과 차이를 명확히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Cross-border and revival of text and context -focusing on 『Mr. Fujino』 and 『Farewell』-

With an experience of his medical study in medical college of Sendai, Lu Xun wrote 『Mr. Fujino』 while Dazai Osamu wrote 『Farewell』 and Fujino Genkuro wrote a work 『Remembering Zhou Shuren』. Those texts play a mutual context in progressing politics and literature in the China and Japan relation.

Dazai Osamu weighed high on the contribution of Netherlands medicine being proud of modern Japan's successful reform. In 『Farewell』 intention of successful medical introduction, contribution of translation and hygiene city were repeatedly described. While 『Mr. Fujino』 is a short and personal novel to recollect a generous old professor whom the author met in his youth, the feature of study abroad in 『Farewell』 consistently shows a longing and discriminating view toward Japan. Nakano Shigeharu's appreciation of the determination of Lu Xun's works cannot be found in 『Farewell』. In 『Farewell』, the author explains the uncivilized situation in China or the mind of Mr. Zhou redundantly demonstrating stale and unrefined aspects of national policy work.

Sometimes, a piece of painting may provide more suggestions and interpretations than a literary work. This study enabled to find two critics on painting by Lu Xun: 『On painting exhibition of Tao Yuanqing』 and 『On paintings of Si Tuqiao』. On the other hand, Osamu Dazai had shown his talent both in literature and arts. He had an active communication with artists and took works in their atelier. In particular, portrait of Oda Shizuko contains complicated, empty and decadent life of Dazai Osamu as it stands.

As shown above, though 『Mr. Fujino』 and 『Farewell』 are important as individual text,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could be clearly shown when the role of context was intensified by mutual complement.